

인생의 무게

본문: 요한복음 4장 4-42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무게”입니다. 인생의 무게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장년에게도 각자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인생의 무게 아래 눌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그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 만남을 통해 무거운 인생이 어떻게 복음의 간증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 무너진 삶 속의 작은 진심도 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생수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인을 망신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가장 깊은 문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는 반복된 관계의 실패와 상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이혼이었는지, 사별이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인생이 너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정말 머피의 법칙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되고, 이 길을 택해도 막히고 저 길을 택해도 막힙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예상보다 더 큰 절망이 찾아오고, 이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조차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마음

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은혜의 징조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때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절호의 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감추어진 문제를 드러내셨지만, 동시에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숨기려 하지는 않았던 그 작은 진심을 알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흔들리고, 마음도 지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만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마지막 양심을 붙들고, 작은 충성 하나라도 지키려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2.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된 예배

마음이 가난해지면 사람은 종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께 예배의 문제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내 예배가 진짜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신앙을 이해했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참된 예배를 회복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시자, 이분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이 장소나 소속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유교회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진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

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가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배입니다. 주일 한 시간만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분위기나 특별한 깨달음이 참된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주일 공동예배만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예배는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 순서에 참석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서로의 무게를 들어주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교회가 되어주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상종하지 않았을 사마리아 여인, 제자들조차 이상히 여겼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감추어진 상처를 드러내시고, 참된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공동체입니다.

3. 인생의 무게가 간증으로 바뀐다

예수님을 만난 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그녀가 우물가에 온 목적은 물을 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목적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전에는 감추고 싶었던 과거였습니다.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과거가 오히려 간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삶을 꼬꿍 싸매기만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조차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무게가 복음의 간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이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각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주님, 내 삶의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무게는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무게를 통해 만난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더블유 식구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무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무게를 통해 마음이 가난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교회다운 공동체 안에서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고, 상처가 간증이 되며, 인생의 무게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더블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